

# Alexander Gray Associates

New York  
510 West 26 Street  
New York NY 10001  
United States  
Tel: +1 212 399 2636  
www.alexandergray.com

Germantown  
224 Main Street, Garden Level  
Germantown NY 12526  
United States  
Tel: +1 518 537 2100

## Frieze Seoul 2022

2022년 9월 2일 - 5일

코엑스 |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부스 C18

알렉산더 그레이 어소시에이츠(Alexander Gray Associates) 갤러리가 **프랭크 볼링**(Frank Bowling)과 **리카도 브레이**(Ricardo Brey), **멜빈 에드워즈**(Melvin Edwards), **하모니 해먼드**(Harmony Hammond), **제니 C. 존스**(Jennie C. Jones), **스티브 로크**(Steve Locke), **베티 파슨스**(Betty Parsons), **하산 샤리프**(Hassan Sharif), **발레스카 소아레스**(Valeska Soares), **잭 휘튼**(Jack Whitten)의 역사적 작품을 포함한 최근 회화 및 조각 작품들을 엄선해 선보인다. 추상과 물질성 그리고 표현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중시하는 전시를 통해 기존의 개념과 관습에 맞서 도전하는 작가들을 주목하고자 하는 갤러리의 행보를 이어 나간다.

**프랭크 볼링**(Frank Bowling)은 지난 수십 년간 추상화의 한계에 도전해왔다. 볼링의 <Worpswedevisit (Green Mansions)>(1981)과 같은 작품은 소용돌이치는 아크릴 물감의 흠빛을 통해 물과 땅을 표현하고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와 아프리카인의 디아스포라의 흔적을 담고 있다. 색과 형태에 대한 작가의 탐구를 상징하는 엄격한 형식주의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가이아나 부근을 배경으로 하는 1904년 소설과 동일한 제목의 대표적인 작품 <Worpswedevisit (Green Mansions)> 에서는 열어졌다.

**멜빈 에드워즈**(Melvin Edwards)의 <A Sign of X>(1984-94)와 같은 작품들은 철거 후 남겨진 산업 재료들에 복잡한 문화적 역사를 붙여넣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각 작품이다. 에드워즈는 암살당한 흑인 해방운동가 맬컴 엑스(Malcolm X)에 대한 찬사와 'x'를 대수적으로 사용하여 관람객들이 폭력과 애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리카도 브레이**(Ricardo Brey)의 작품은 그의 모국 쿠바의 복잡한 시각적, 문화적 어휘에 서양 미술 고전에 대한 깊고 미묘한 이해를 더한다. 예술은 연금술의 한 형태라는 브레이의 믿음을

구현한 작품 <Unsettling>(2019-20)은 장식이 있는 금속 바퀴와 같은 물건과 돌 한 덩어리를 병치해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형시킨다.

**하모니 해먼드**(Harmony Hammond)의 최근 작품들의 중심에는 물질성과 지표성에 초점을 둔 페미니스트와 퀴어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 <Chenille #4>(2016-17)는 거친 삼베 면과 쇠고리를 그림의 구조에 접목한 시리즈의 일부이다. 해먼드는 이 연작에서 '여성의 일(women's work)'인 공예 전통과 모더니즘을 더해 추상적인 캔버스를 만든다. 그녀는 이 작품이 '거의 단색(near monochrome)'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묘하게 표현된다(perform queerly)'고 이야기한다.

**제니 C. 존스**(Jennie C. Jones)의 최근작들은 기하학과 색, 재료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그려내며 음속(sonic)에 대한 연구를 확장한다. <Corner Phrase / Soft Measure>(2020)는 평평한 벽면에서 떨어져 나와 모서리를 둘러싸는데, 이는 작품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환원주의적 구성과 미니멀리즘을 동일시하는 제스처이기도 하다. 존스는 "'주체(subject)'를 거부하고 '객체(object)'를 포용하는 데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이 작용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위태롭게 느껴진다. 미니멀리즘은 나의 이야기와 내 몸을 납득시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급진적인 제스처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스티브 로크**(Steve Locke)는 그의 작품에서 남성의 욕망과 유약함, 섹슈얼리티를 탐구한다. <Cruisers #1>(2021)을 비롯한 여러 작품은 동성애자 남성들 간의 은밀한 순간들을 포착하며 남성성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고 초상화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로크의 <Cruisers>는 '시선을 주고받는 것과 누군가를 보는 특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봐주길 바라는 바람'에 대한 작가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베티 파슨스**(Betty Parsons)는 1940년대에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자연에 큰 영향을 받은 그녀는 순수하게 연상적인 추상 방식으로 종이에 작품활동을 하였고 주변 환경이 그녀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신이 한 때 공간의 '순수한 에너지(sheer energy)'라고 표현했던 것을 포착하기 위해 애썼다.

**하산 샤리프**(Hassan Sharif)는 중동의 개념 예술과 실험적인 작품의 선구자였다. 아랍에미리트의 독립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물질 문화에 대응하여 작업한 조각 시리즈 <Objects>(1982-2016)는 현지 재료와 수입 재료를 '엮음(weaves)'으로써 그가 사는 두바이의 급진적인 산업화와 급증하는 소비주의를 비판적으로 표현한다.

**발레스카 소아레스**(Valeska Soares)는 자신의 작품에서 획일적인 서사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그녀가 생각하는 '기억과 맥락을 되살리는 계기'를 제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소아레스의 <Doubleface (Buff Titanium White/Sap Green)>(2019)는 빈티지 유화를 현대 작품으로 탈바꿈시켜 예술과 사물의 이질적인 역사를 해체하고 표면에 숨겨져 있던 형상적인 요소를 드러낸다.

추상화의 선구자인 **잭 휘튼**(Jack Whitten)은 혁신적인 재료와 방식, 과정을 통해 매체의 경계를 넓혀나갔다. <Single Loop: For Toots>(2012)는 작가의 후반부 연작 시리즈 중 하나로 고리 형상과 도형과 배경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담겨있다. 빨간색을 좋아했던 여동생의 이름을 딴 이 작품은 그가 1970년대 제록스 토너로 했던 실험과 그 당시 작업한 <Slab Paintings>와 <Greek Alphabet>을 떠올리게 한다.

이 10인의 작가들이 모여 작품 작업 관행의 제도권을 벗어나 추상과 물질성,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여 개인적이고 또 집단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독특한 언어를 만들어낸다. 소아레스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 방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결고리를 끊고 나만의 상징과 마크를 만들어내어 색다른 언어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어떻게 해야 온전히 나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